

두 줄 치약·아토피 연고 개발 '호산치과' 정 충현 원장의 연구하는 삶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거죠”

치과병원 원장, 회사 대표이사, 발명가 등 1인 3역을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호산치과' 정충현(52) 원장. 그는 치과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1년에 기능성 치약을 만드는 (주)아이덴트프류(2004년, 화이투스로 상호 변경)라는 회사를 창업해 '사장님'이 되었다. 입법세

치과원장·사장·발명가 1인3역

제거와 잇몸질환에 좋다는 '듀오클린'이라는 치약을 만들고, 정·역활전이 가능한 진동칫솔을 개발해 특허출원도 받아 발명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여전히 사장님이라는 칭호는 어색하다는 그는 '치과의사 정충현'으로 불리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한다. 그런 정원장이 사장님, 발명가의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환자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몇 년 전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환자

의 치아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해 몇 달 동안 꺾꽂이를 못할 뿐 아니라 통증까지 심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 환자의 딱한 모습을 보고 입안을 행구기만 해도 되는 간단하고 편리한 치약과 칫솔을 만들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민이 현재의 그를 만들었다.

그가 고심 끝에 만든 '듀오클린'은 하드 케이스 형태로, 용기 버튼을 밀면 두 개의 구멍에서 산성, 염기성 성분의 치약

뇌졸중 환자 치료하다 연구 시작

이 나오기 때문에 '두 줄 치약'이라고도 불린다. 이 치약은 산성과 염기성 성분이 입안에서 섞이면서 중화반응을 일으켜 세척력을 높인다. 입법세와 치주 질환에 효과가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치약은 현재 전국 약국, 치과, 인터넷 (www.whitooth.com)에서 판매중이다. 그는 이 치약을 사용한 사람들의 반응

을 통해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됐다. 치약을 사용한 뒤 속까지 편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선대 의대의 임상실험 결과 이 치약이 충치를 유발하는 균과 심근내막염 원인균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반면, 장에 좋은 유산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이 치약에 아토피 염증을 유발하는 균이 죽는 것을 발견했다. 치약성분으로 로션을 만들어, 주변 아토피 환자에게 주사 가려움증이 완화된다는 반응들이었다. 아토피 증상완화제 '노토피'가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였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발명을 하겠다고 하자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 자비를 들어가면서까지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겠냐며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죠.”

연구 개발과 공장 설립에만 든 돈이 20억원이 넘고,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3년간 실험 없이 병원 일과 연구에 매달려야

했다. 시행착오도 겪고, 제품개발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패의 아픔 보다는 머릿속에 맴도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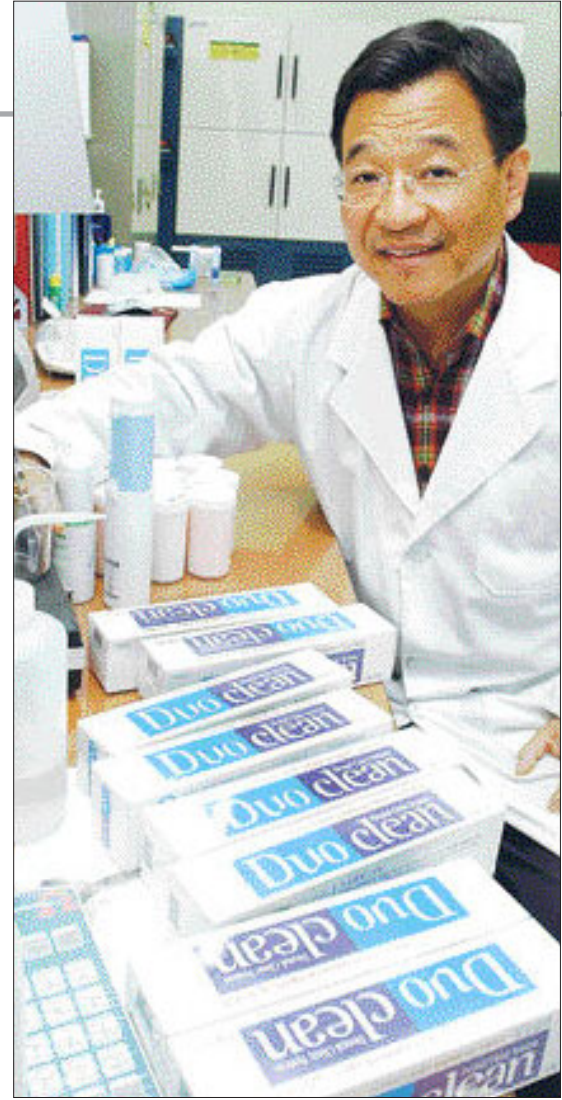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일 포기 안해

그는 지금도 환자와 고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사용이 편리하도록 기어를 이용해 치약을 짜내도록 하는 용기를 만들어 지난 2003년 '제31회 스위스 제네바 국제 발명품 박람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다른 건 잊고 연구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구할 것이 많으며 서울터 인터뷰를 마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충현 호산치과 원장이 광주 테크노파크에 있는 (주) 화이투스 연구실에서 자신의 발명품인 '듀오클린' 치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치랑기자 jrwi@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March 3rd (Wednesday) across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Jeonbuk, and Seoul. Includes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대보름 달 구경 못할 듯

휴일 흐리고 많은 비 내주 초 영하 꽃샘추위 휴일이자 정월대보름인 4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보름달 구경이 힘들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이날 흑산도 지역 27mm를 최고로 전남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온 가운데, 주말인 3일에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다가 꺾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러나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올 겨울 기상관측 이래 가장 포근

평균기는 평년보다 2도 ↑ 올겨울은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포근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46도로 1971~2000년 평균인 0.43도보다 2.03도를 웃돌면서 역대 겨울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특히 2월 전국 평균기온은 4.09도로 평년치(0.75도)를 3도 이상 크게 상회하면서 최고를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겨울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약화와 이동성

초등 입학생 귀갓길 참변 대안학교 보조금 유용 수사 확대

경찰, 대가 제공 정황 포착...교육청 공무원 소환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8세 남자 어린이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2일 오후 1시3분경 목포시 상동 편도 2차로에서 서촌동 삼거리서 목포 자동차검사소 방향으로 달리던 '전남 70바 13XX호' 300번 목포 시내버스

광주지역 대안학교의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관할 교육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2일 "A중학교의 관할 교육청인 광주 동부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등 교육청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중학교가 2004년 8월 학급증설 인가를 요구하며 보조금의 일부를 교육청 해당 공무원에게 대가로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단계"라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대부분 교사임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지급 등에 이용하기는 했지만 불법적인 곳에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군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뒤따라오는 사이 혼자서 도로를 건너 맞은편 집으로 가려다 달려오는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년제 대안학교인 A중학교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 가운데 4천여만원이 규정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된 단서를 잡고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중학교가 2004년 8월 학급증설 인가를 요구하며 보조금의 일부를 교육청 해당 공무원에게 대가로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단계"라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건배하고 있다.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린다. /워치랑기자 jrwi@kwangju.co.kr

미련한 행동이라 했는데...

또 잇단 자살 취업 문제와 지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1일 오후 7시경 광주시 북구 양산동 2 아파트 이모(47)씨의 집 화장실에서 이씨의 아버지(73)가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장흥으로 시집 온 '이란 공주' 떴네

위더웰던씨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입담 한국 아줌마 된 사연 네티즌에 인기 2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장흥에 시집 온 '이란공주' 위더웰던(35·사진)씨가 화제가 됐다. 위더웰던씨는 이날 오전 방송된 MBC '이재용과 임예진의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외국인 답지 않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늘봄새가 난다.

한국의 정이 느껴진다며 남다른 한국사랑, 전라도 사랑을 보여줬다. 5년 전 귀화한 그녀는 주민등록증도 공개했는데, 이름은 '위드발라드'. 그녀는 "누가 이름을 물어보면 '뒤로 발라드'라고 한다"며 걸출한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위더웰던' '이란공주'를 집중 검색해 검색어 1위로 올려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이훈때 결혼 예물 안들려줘도 된다

이훈 소송과 함께 낸 결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해 이훈 판결을 내렸지만, 결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은 기각. ○재판부는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 ○S씨 부부는 2003년 결혼 직후부터 S씨의 여학연수와 L씨의 지방 직장근무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불화가 생겨 이훈소송을 제기했는데, S씨는 L씨에게 예물도 줬던 만지와 귀고리 등 3천100여만원의 예물에 대한 반환도 요구. /연합뉴스